



## 역대 한미대통령 묘사프레임 비교분석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한미정상회담 보도를 중심으로\*

### 설원태

경향신문 편집국 편집위원 solwt@hanmail.net

본 연구는 프레임 연구의 이론을 원용해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역대 한미정상회담 보도에서 드러난 한국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묘사프레임을 비교분석해 본 것이다. 두 신문의 기사를 근거로 귀납적으로 묘사프레임을 추출한 다음 대통령별로 비교분석했다. 추출된 묘사프레임은 “영웅-선생님”, “동격지도자”, “전략가”, “철부지-반항아”, “독재자-구걸인”이었다. 한국대통령들 가운데 두 신문의 묘사프레임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두 신문에서 모두 부정적 묘사프레임으로 보도됐다.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묘사프레임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대통령은 존슨, 레이건, 조지 HW부시, 클린턴, 조지W부시였다. 조선일보는 이들을 주로 ‘동격주의자’ 프레임으로 묘사했으나 뉴욕타임스는 이들을 전략가 프레임으로 묘사했다. 두 신문에 의한 대통령 묘사프레임은 큰 흐름에서는 다소 유사성이 있었으나, 개인별 비교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아울러 두 신문의 대통령 묘사가 ‘영웅적’ 프레임에서 ‘동격적’ 프레임으로 변화해 왔음도 보여주었다. 이처럼 두 신

\* 본 논문은 2011년 2월 본 연구자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제출한 언론학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학술지에 맞도록 재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이 논문은 2011년 6월 4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소통학회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본 논문을 치밀하게 쓸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 보도에서 대통령 묘사프레임이 차이를 보였던 것은 국내 정치적 요인의 변화(한국의 독재시절과 민주화 이후 시기), 한미 관계의 변화(일방적 원조관계에서 외견상 수평관계로 변화), 언론 환경의 변화(한국의 언론자유의 신장) 등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KEYWORDS** 한미정상회담 • 한국대통령 • 미국대통령 • 대통령 묘사프레임 • 한미관계

## 1. 문제 제기

한국의 대외관계 중 한미 관계는 1948년 한국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한국에서는 최고의 국내 정치적 행위임과 동시에 최고의 외교적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한미 관계는 한국의 일제식민 강점 시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2차 대전 이후 한국이 독립국으로 새로 자리를 잡아가고 한국전을 치르면서 한미 관계는 한국정부의 수립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정부에 있어서 한미 관계는 한국의 다른 어느 나라와의 관계보다도 더욱 중요한 외교문제였고, 한미 관계는 한국정부 외교의 주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이승철, 2011).

정치학자들은 흔히 “한미관계에는 상당한 정도의 ‘비대칭 (asymmetry)’ 현상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비대칭 현상이 동일한 현상인 한미정상회담을 보도하는 데도 양국 언론에도 반영됐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언론보도 분석에서 말하는 보도프레임은 “현실을 재구성한다”고 정의되고 있는 만큼 이런 양국 간 비대칭 현상이 양국 대통령 묘사에서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두 나라의 비대칭을 나타내는 요소는 여러 가지다. 인구를 보더라도, 미국의 인

구는 2010년 현재 3억700만 명에 달하고(미 상무부 Census Bureau), 연간 국방비는 69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인구는 2010년 현재 5,050만 명에 달하고(대한인구협회, 북한 제외), 연간 국방비는 300억 달러에 달한다. 한미 양국의 차이(비대칭)는 인구로 보면 미국이 약 6배, 국방비로 보면 미국이 약 23배에 달한다.

본 연구는 이런 비대칭 현상이 동일한 사건인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보도에서도 드러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한국의 국력이 1948년 한국정부 수립 이래 엄청나게 커졌고 세계가 글로벌화된 요즘 본 연구는 과거 한미 언론보도 사이에 어느 정도의 비대칭이 있었는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한미 양국 언론의 차이를 파악해 보려 한다. 본 연구는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가졌던 역대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양국의 대표적인 언론이라 할 만한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보도를 분석해 이들의 보도에 나타난 양국 대통령의 묘사프레임은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 양국 대통령들은 자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정치적 인물인 동시에 상징적 의미를 가진 인물이며 이들에 관한 언론의 묘사 및 보도는 해당국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들 두 신문에 나타난 한미 대통령 묘사프레임을 비교연구한다는 것은 상대국 및 자국의 언론에 비친 양국 대통령의 이미지, 나아가 자국 및 상대국의 이미지까지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게다가 한국정부 수립 이래 60여 년에 걸쳐 양국 신문이 양국 대통령을 어떤 모습으로 보도했는지를 비교해 본다는 것은 자국 및 상대국의 언론에 비쳐진 자국 또는 상대국의 이미지의 변화 소(小)역사까지도 비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1948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61년 동안 모두 51차례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을 보도한 한미 두 신문의 기사를 근거로 양국 대통령의 이미지, 나아가 양국의 이미지를 대통령 묘사프레임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려는 것이다. 최근 60여 년에 걸친 한미 관계사가 굴곡을 거듭했고, 한국이 정부수립 이래 반세기 만에 민주화 단계에 들어와 있는

만큼 한미 양국 언론에 비쳐진 양국대통령의 이미지, 즉 대통령 묘사프레임의 변화는 한미관계사를 반영할 것이라고 가정된다. 나아가 신문보도를 통해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의 변화를 비교연구하는 것은 이 기간 중 양국 언론의 발전과 변화상을 동시에 엿볼 수 있게 할 것이다.

특히 연구대상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는 만큼 양국 언론의 대통령 묘사프레임만을 놓고 보아도 양국 언론의 변화사(史)를 추정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국은 정부수립 후, 한국전을 거친 독재시기에서 시작해 민주정부 수립으로 발전해 온 만큼 한국신문이 자국 및 미국 대통령 묘사에 어떤 프레임을 썼는지, 아울러 그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던 역대 한국 대통령 및 미국 대통령 보도에서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어떤 묘사프레임을 썼으며 그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학문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처럼 본 연구는 한미 양 언론의 보도에서 양국 대통령 묘사프레임을 상호 비교하고 동시에 한국 및 미국 대통령 묘사프레임의 시대적 변화를 파악 분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갖는다.

다만 문제는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분석이라는 연구방법은 언론학이나 정치학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유사한 전례를 찾기가 어려웠고, 정치학 쪽에 약간 관련 있는 연구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프레임분석이라는 언론학의 연구방법을 원용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한미정상회담 보도기사에 내재돼 있는 양국대통령의 묘사프레임을 비교분석해 보기로 했다. 이런 방법을 통한 정치인 묘사프레임 비교분석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며,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양국 언론보도 프레임의 차이나 유사성도 동시에 드러내려 한다.

## 2. 문헌 연구

### 1) 한미정상회담 보도와 한미관계의 굴곡

‘정상회담(summit meeting)’이란 한 나라의 외교관들이 이행하는 외교 수준을 넘어 한 국가 정상이 상대국 정상과 직접 만나 행하는 가장 눈에 띄는 형태의 최고급 외교행위를 가리킨다. 국가의 정상들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상대국 정상이 국내에서 어떤 정치적 한계 안에서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관료조직이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양국 현안을 해결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이것은 기능의 관점에서 ‘정상외교(summit diplomacy)’라고도 불린다(Hastedt, 2003, p. 294). 이런 면에서 한미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정상인 양국 대통령이 만나 행하는 최고위급 외교적 회담”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정의를 염두에 둔 가운데 본 연구에서 말하는 ‘한미정상회담 보도’는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정상회담은 국내 수용자를 목표로 한 국내 보도의 성격도 있지만 해외 수용자를 염두에 둔 국제 보도의 영역에도 속해 있어 국내 및 국제보도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김성해·김경모, 2008).

이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보도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 보도는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을 동시에 취재원으로 할 뿐만 아니라, 회담 자체가 한국언론과 미국언론이 동시에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다. 또한 정상회담 보도라고 하지만 반드시 이들 정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고위관리들의 발언도 중요한 정보로 취급되며 정상회담을 둘러싼 여러 정치·경제적 여건들도 동시에 정상회담 보도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보도된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정상회담 보도는 한미 양국의 언론사가 속한 국가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 중요시되는 보도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언론은 정상회담 보도에서 “자국중심적 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을 보도하는 양국 언론의 보도는 서로 각도를 달리할 수 있다(김학순, 1999). 이

것을 프레임의 관점에서 보자면, 동일한 회담을 보도하는 데에도 보도 프레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국 언론의 보도는 소속국의 외교정책에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김성해·강국진, 2010).

현대에 들어와 급속한 세계화과정에서 속에서 많은 나라가 점차 공통의 사건이나 이슈에 접하게 됐고 이에 영향을 받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 국가들이 공통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프레임에서 이를 보도할 수는 없다. 세메트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는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소속국들의 보도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성태(Kim, S. T., 2004)와 디미트로바와 스트롬백(Dimitrova & Stromback, 2005)도 각각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둘러싼 보도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보도를 분석하면서 관련국들의 언론이 각각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보도했음을 밝혀냈다. 또한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2호’를 발사했을 때 국내언론과 서방언론은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비행 물체”라는 프레임에서 보도했던데 비해 북한언론들은 시종일관 “인공위성”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실은 동일한 사안을 놓고 언론들이 확연히 다른 프레임으로 보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본 연구를 위한 기본을 제공한다(설원태, 2011).

한미정상회담 보도에서 양국의 두 신문인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에 비쳐진 양국 대통령의 이미지 즉 묘사프레임을 추출 분석하려는 본 연구를 위해 연구기간인 1948년 8월 한국정부 수립 이래 2009년 8월까지 61년간의 한미관계사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통사적 양국관계는 양국의 역학관계 및 양국 대통령의 묘사프레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관계에서 압도적으로 미국의 힘이 강했고, 한국이 미국의 군사·경제적 원조를 희구했던 한미관계의 초기에는 그런 시대 상황에 의해 어느 한국 대통령이라도 양국언론에 의해 ‘지원 희구자’의 모습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 성장이 본 궤도에 오른 뒤에는 한국대통령이 미국대통령에게 원조를 희

구하는 대신 외견상 동격의 모습으로 미국 대통령과 아시아 또는 세계전략을 논의하는 상황으로 변했다. 이런 경우 한국 및 미국 대통령은 ‘동격 지도자’의 모습으로 두 신문에서 그려지게 됐다.

61년에 걸친 한미관계사에서 양국은 동맹과 갈등의 골곡을 보여왔다. 한국의 대미 위상은 한국전쟁 이후 철저한 수원국(受援國)에서 출발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다소 대미 독립적인’ 중견국으로 변해 왔다. 한미정치 전문가들의 평가를 원용해 한미관계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① 일방적 수원 관계(한미동맹 수립기) ② 한미 동반자 관계(한미동맹 변화모색기) ③ 한미 마찰기(한미동맹 쇠퇴기) ④ 한미동맹 회복기 정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차상철, 2004; 김석용, 2005; 강정구, 2005).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① 일방적 수원관계의 시기는 한국정부 수립 직후부터 한국전쟁의 참화를 거쳐 한국이 미국의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이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을 달성한 시기까지를 가리킨다. 이승만에서 전두환 정권에 이르는 시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북한의 위협을 늘 의식하던 이 시기에는 한국 대통령들이 미국대통령들에게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희구했고, 나아가 미국대통령들에게서 “민주화의 길을 가라”는 충고를 받았다. 한국민들은 이 시기에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열광적으로 환영했고 한국언론은 방한하는 미국대통령을 ‘영웅’의 모습으로 보도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없던 당시 한국대통령들은 한국언론에 의해 매우 우호적 모습으로 묘사됐다.

이어 ② 한미동맹 변화모색기에는 한국이 전후복구를 끝내고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서 대미관계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다소 높아지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노태우·김영삼 정권기에 해당하며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을 지불하거나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대통령들은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변했다. 미국대통령들은 한국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자 한국민주화에 관한 압력을 거두는 대신 “한국의 시장을 열어라”면서 한국대통령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다소 민주화되면서 한국언론은 자국 대통령에 대해 제한적으로 비판적 보도를 했으며, 시장개방 압박을 가하는 미국대통령을 비

판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③ 한미 마찰기(한미동맹 쇠퇴기)는 김대중·노무현 정권기에 해당한다. 이 때부터는 한국대통령들이 미국대통령을 상대로 한국의 주장을 강하게 펴기 시작했다. 양국 간 마찰은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놓고 깊은 인식차를 보이면서 노정됐다. 한국인의 반미감정이 고조에 달한 것도 이 때였다. 양국 대통령 사이에는 파열음이 불거졌으며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시기에는 양국 대통령의 관계가 최악상황으로 떨어졌다. 이 시기에 보수적인 조선일보는 대북정책을 놓고 김대중·노무현을 비판적으로 묘사했고, 한국민들은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반대시위를 벌이는 상황으로 변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정책을 놓고 노무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④ 한미동맹 회복기는 이명박 정권기를 가리킨다. 기간이 짧아 시기를 구분하기에는 다소 무리함이 따르지만 노무현 정권이 이은 이명박 정권의 대미 관계는 눈에 띄게 반미에서 친미로 변했다. 이런 면에서 동맹회복기로 구분할 수 있다. 양국 대통령은 다시 우호적 관계로 돌아갔으며 양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놓고 공동대응의 자세로 되돌아갔다. 특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한미동맹 회복’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상의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한미정상회담 보도에서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는 국가이익, 언론사의 편집방침, 자국의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근거한 보도프레임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됐고, 나아가 양국 대통령을 묘사하는 기사에서도 이런 요인에 근거한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됐다. 특히 한미 관계사가 다양한 굴곡을 보였고, 한국이 짧은 기간에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진전한 만큼 한미 양국의 두 신문은 한미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양국 대통령 개인묘사에서 이런 보도프레임을 적용했을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양국 언론의 보도에 내재돼 있는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을 추출해 상호 비교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 2) 프레임 분석,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 대통령 이미지, 프레임 추출

선행연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프레임은 “뉴스 미디어가 현실을 재구성하는 도구”의 성격을 갖는다(Tuchman, 1995). 선행 연구자들은 프레임 분석에 관해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했고, 이 처럼 다양한 접근으로 인해 뉴스프레임에 관한 이론들은 좀 산만해 보인다. 하지만 “뉴스프레임 이론에 정해진 틀이 없다는 점은 동시에 이 이론의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도 있다. 대체로 프레임 분석은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프레임 유목들을 기반으로 삼아 이를 원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후속 프레임 연구들은 선행 연구가 사용한 프레임들을 참고해 연구 주제에 맞도록 새 유목을 추가하거나 기존유목들을 변화시켜 다양한 형태로 진행돼 왔다.

기틀린(Gitlin, 1980)은 선행연구자들의 이론을 받아들여 1960년대 중반 미국 언론이 신좌익 학생들을 “공익을 위협하는 위험한 집단”이라는 뉴스프레임으로 보도해 이런 이미지가 일반인들 사이에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기틀린은 지각된 현실들 가운데 특정 측면을 선택해 사건을 정의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을 ‘프레임’이라고 정의했다(조연하 등, 2006, 재인용). 다음으로 엔트먼(Entman, 1991)은 “프레임의 요체는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프레임은 묘사되는 현실의 요소들을 축소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이런 요소들이 눈에 더 띄거나 덜 띄도록 한다”고 설명했다(p. 9). 갠슨(Gamson, 1992)은 프레임에 대해 “사람들이 기사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돕는 이야기 구성방식”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키칭거(Kitzinger, 2007)는 “프레이밍은 우리가 현실을 조직하는 과정을 가리킨다”고 정의했다. 키칭거는 프레이밍에 대해 “사건들을 특정한 방법으로 범주화하고, 어떤 측면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경험이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경험이나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레임(프레이밍)은 대체로 “미디어가 자신의 시각에서 현실을 재구성하는 틀(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다. 프레임은 미디어가

사물을 어떻게 자신의 시각에서 보도하느냐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뉴스프레임 연구방법에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다. 연역적 방법은 분석에 사용할 프레임을 미리 정의하고 접근하는 것으로,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프레임이 누락될 단점이 있으나 신뢰할 만한 프레임을 측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귀납적 방법은 각 프레임을 느슨하게 정의한 후 실제 사례를 분석하면서 가능한 모든 프레임을 추출하는 방법(강내원, 2001, 2002, 2004; 김선남, 2002; 양정혜, 2001)을 가리킨다. 이것은 이미 확립돼 있는 프레임을 미디어 분석에 적용하는 연역적 접근과는 다르다.

프레임 분석작업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계층적 프레임 형식을 유형화한 연구도 있다. 예컨대, 김원용·이동훈(2005)은 1950년대~2004년 사이의 국내 원자력 관련 보도(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를 분석하면서 9개의 '1차 프레임'과 3개의 '2차 프레임'을 추출했다. 말하자면, 1차 프레임은 좀 세부적(하부적)인 것이고, 2차 프레임은 좀 더 포괄적(상부적)인 프레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밴 고르프(Van Gorp, 2007, p. 67)도 계층적 프레임 유형을 상정했다. 밴 고르프는 '거대 프레임(master frame)'과 '특정이슈 프레임(issue-specific frame)'으로 분류해 프레임 분석을 계층화하려 했다. 밴 고르프(2007)의 프레임 분류는 '프레임의 범위에 따른' 프레임 설정으로 풀이된다. 즉, '특정 이슈 프레임'은 한정된 이슈에만 관련된 것이고, 좀 더 포괄적이고 범위가 큰 것은 거대 프레임이라고 이해된다(Van Gorp, 2007, p. 67). 이런 계층적인 프레임분석은 비교적 새로운 프레임분석으로 프레임연구에 좀 더 체계성을 부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며, 이 같은 계층적·체계적 프레임분석은 기존의 프레임분석에 좀 더 폭넓고 입체적인 시각을 제공해 준다.

엔트먼(Entman, 1990)은 "언론인들은 그들의 뉴스가치 체계에 근거해 기사의 틀을 짓는다(프레임을 짓는다)"고 말했다. 대체로 언론인과 대통령의 상호협력에 의해 언론의 대통령 보도프레임이 결정되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언론은 나름대로의 기사가치에 따라 대통령 기

사의 프레임을 세워 보도한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프레임 적용은 본 연구에서 말하는 한미 양국대통령의 이미지 보도, 즉 개인묘사 프레임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엔트먼(1990)은 “대통령을 묘사하는 방식”을 언급하면서 ① 개인화(personalization: 대통령 보도를 폭넓게 역사적·구조적 관점에서 하지 않고 의도적 선택으로 특정사건을 유발한 대통령 개인에 집중한 보도) ② 정보원 표준화(source standardization: 대통령에 관련된 출입처의 동일한 집단에 속한 한정된 정보원을 사용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만 보도) ③ 드라마화(dramatization: 미디어 수용자에게 흥미, 동정심, 공포, 카타르시스를 일으킬 수 있도록 뉴스인물의 묘사를 극적으로 보도) ④ 대리적인 표현(surrogate representation: 대통령의 행동이 일반의 평범한 국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도)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이들 묘사 유형은 보도의 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된다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엔트먼의 대통령 묘사방식 논의는 정치학자 쿡과 랙스데일(Cook & Ragsdale, 1995)이 제시한 “이상적인 대통령 이미지(대통령 보도프레임)”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쿡과 랙스데일은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 갖고 있는 이상형을 근거로 대통령 묘사프레임의 유형을 제시했다. 두 연구자에 의하면, 기사는 대통령에 대해 “정부를 책임진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고 유일한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 또는 “나라의 1차적 문제 해결자(principal problem solver)”라는 이상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대통령은 중심을 못 잡고 있다”거나 “일관성을 잃었다”거나 “혼돈스럽다”고 비판적 기사를 쓸 때, 그들은 암묵적으로 대통령에 대해 “혼자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강고한 결심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대통령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쿡과 랙스데일(1995)이 위의 논의를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 이미지 유형은 ① 문제해결자로서 대통령(대통령을 국내외 문제의 최종해결자로 묘사) ② 국제적 지도자로서 대통령(대통령이 ‘국제적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묘사) ③ 국민 대변자로서 대통령 기사(대통령을 평범한 국민의 꿈이나 성공담을 대변하는 기사의

주인공으로 묘사) ④ 대통령의 실수에 관한 기사(대통령이 정치적, 정책적, 인간적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도) 등 네 가지이다. 위의 네 가지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 중 앞의 세 가지는 우호적인 개인묘사 프레임이고, 네 번째는 비판적 개인묘사 프레임이다. 쿡과 랙스테일은 “미디어는 대통령 보도에서 ① ② ③ 유형의 기사를 즐겨 사용하지만 이들이 없을 경우 ④ 유형의 기사도 쓴다”고 말했다.

이상에서 대통령 묘사, 나아가 정치인의 개인적 이미지나 묘사프레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정치인 또는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은 정치학자들과 언론학자들이 만들어낸 대통령 이미지에 관한 일반적 논의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쿡과 랙스테일의 대통령 이미지 유형은 서로 겹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국제적 지도자의 대통령 이미지는 수시로 문제해결자의 이미지와 겹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대변자의 이미지와 대통령의 실수(과오)에 관한 기사는 대체로 빈도가 높지 않다. 본 연구가 한미정상회담이라는 특정한 상황의 언론보도에서 도출되는 대통령 묘사프레임을 비교분석하려는 것인 만큼 쿡과 랙스테일의 대통령 이미지 유형을 본 연구에 응용하기에는 무리함이 있었다. 또한 엔트먼의 대통령 개인묘사 유형도 대통령 이미지 묘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응용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한미 양국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은 양국 대통령이 국가지도자로서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상황인 만큼 앞에서 말한 ‘국제적 지도자 프레임’ 하나만으로 포괄할 수 있다는 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미 대통령의 개인묘사프레임을 연구하기 위해 구체적 기사들을 놓고 귀납적으로 묘사프레임을 추출해 분석하기로 했다.

###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어느 정도 좋은 아이디어는 제공하지만 직접적인 응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구체적인 기사를 바탕으로 양국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추출해 비교분석하기로 했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 연구문제 1-1: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에서 드러난 한국대통령의 개인묘사 프레임은 각각 어떠한가, 두 신문의 한국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은 어떻게 같거나 다른가?
- 연구문제 1-2: 또한, 이들 두 신문에서 드러난 한국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의 전체적인 양상은 어떻게 비교되며, 긍정적 묘사 프레임과 부정적 묘사프레임은 어떻게 같거나 다른가?
- 연구문제 2-1: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에서 드러난 미국대통령의 묘사프레임은 각각 어떠한가, 두 신문의 미국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은 어떻게 같거나 다른가?
- 연구문제 2-2: 또한, 이들 두 신문에서 드러난 미국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의 전체적인 양상은 어떻게 비교되며, 긍정적 묘사 프레임과 부정적 묘사프레임은 어떻게 같거나 다른가?

#### 2) 연구방법

두 개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우선 기사 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는 1948년 8월부터 2009년 8월에 걸쳐 열렸던 61년간 51차례에 이르는 역대 한미정상회담의 일지를 외교통상부에서 입수한 다음 정상회담 일정의 하루 전에서 하루 뒤까지의

신문에서 한미정상회담에 관련된 모든 기사를 수집했다. 여기서 ‘모든 기사’라고 한 것은 정상회담 일정 예고기사, 대통령 출국기사, 대통령 귀국기사, 출국 환송행사 기사, 귀국 환영행사 기사, 대통령들의 만찬, 두 대통령이 도출한 합의나 이견에 관한 기사,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반대 기사, 대통령의 움직임에 관한 기사(예컨대, 미국 대통령의 주한 미군기지 방문 등) 등 한미 두 대통령의 방한·방미에 관련되는 모든 기사를 포함한다. 조선일보 기사는 마이크로필름과 인터넷상의 기사수집 방법을 썼고, 뉴욕타임스 기사는 주한미국대사관 자료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ProQuest라는 프로그램에 접속해 모두 5개월간(2009년 1월·2009년 5월)에 걸쳐 샘플을 확보했다. 두 신문의 기사수집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어를 입력해 일단 모든 기사제목을 확보한 다음 기사본문은 마이크로필름과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기사를 프린트해 확보했다. 검색어는 회담 일정에 맞추어 한미정상회담에 참여한 “한국 대통령 이름(예: 이승만), 미국 대통령 이름(예: 아이젠하워), 한국 대통령과 미국대통령 이름(예: 이승만 and 아이젠하워)”을 입력해 중복되는 기사제목을 삭제하고 개별회담에 관련된 기사제목을 모두 확보했다. 이들 두 신문을 선택한 것은 이들이 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신문으로 흔히 평가돼 있기 때문이다.

수집하는 기사유형은 사진을 제외한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했다. 예컨대, 스트레이트 기사, 해설, 사설, 사내외 칼럼, 논단/좌담, 스케치 기사 등을 모두 포괄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기준으로’ 수집된 기사는 뉴욕타임스 187건, 조선일보 1,143건이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많지 않았다. 제목으로 수집된 여러 기사들을 기사의 판독가능성이나 수집중 잘려나간 기사 등을 고려해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기사들로 재조정된 결과 조선일보는 526건, 뉴욕타임스는 161건으로 재정리됐다. 대통령 묘사 프레임분석은 재조정된 기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분석대상이 된 회담별 보도량은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 연구를 위해 ‘개인묘사 프레임’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본 연구는 한미정상회담을 보도한 기사들 중에서 양국 대통령의 개인적 이미지를 묘사하는 내용을 담

표 1. 재조정된 한미정상회담 차수별 보도량

회담차수 신문명	1	2	3	4	5	6	7	8	9	10
NYT	1/7	4/15	3/7	4/7	1/7	2/5	1/3	1/3	1/3	3/10
조선	9/18	32/33	13/13	31/32	18/20	23/34	13/16	11/14	9/23	11/26

회담차수 신문명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YT	3/14	3/10	0/5	2/5	2/4	0/2	1/2	0/2	0/1	1/2
조선	18/44	7/28	4/7	2/8	3/8	4/9	5/9	2/5	2/6	2/7

회담차수 신문명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YT	2/3	2/4	2/3	1/1	2/3	1/2	0/0	0/0	1/3	2/2
조선	3/13	3/9	0/0	2/5	1/5	0/3	0/0	0/3	1/7	3/7

회담차수 신문명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YT	1/1	0/0	0/0	0/0	1/3	0/0	1/1	0/4	0/0	0/0
조선	3/5	1/3	0/2	1/3	3/5	3/3	2/8	1/13	3/7	1/2

회담차수 신문명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계
NYT	0/1	0/2	0/1	0/2	0/1	0/3	0/0	0/2	0/0	0/2	1/3	50/ 161
조선	2/7	2/9	1/10	1/3	1/4	1/4	1/1	1/12	0/12	1/4	1/8	259/ 526

\*참고: 위의 <표 1>에서 회담차수별 보도량을 나타내는 수치들 중 각 칸의 “ / ”에서 왼쪽 수치는 1면 기사건수, 오른쪽 수치는 전체 기사건수를 가리키다.

은 기사에 대해 “개인묘사 프레임이 있다”고 평가했고 그 프레임을 추출했다.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에 관한 선행연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프레임연구의 일반적 원칙에 근거해 귀납적 방법으로 프

레이미를 추출했고, 한 기사에 두 개 이상의 개인묘사 프레임이 있을 경우 하나의 주된 개인묘사 프레임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 추출작업은 언론학에서 국내외에서 선행 연구가 발견되지 않아 기사를 근거로 귀납적으로 “새롭게” 추출하기로 했다. 이 작업을 위해 본 연구자와 한미관계에 정통한 고참 언론인이 함께 수집된 기사들을 놓고 4주 동안 프레임 추출작업을 했다. 프레임 추출은 전반적으로 기사의 분위기를 본 다음 직관에 의해 프레임 유무를 추출했고, 이어 여러 기사에 적용해 보는 방법으로 차츰 작업을 진행했다. 당초 7개의 프레임이 추출됐으나 코딩에 들어가기 전 코더들과 상의한 결과 유사한 프레임을 엮어 최종적으로 개인묘사 프레임을 5개로 확정했다. 최종 추출된 프레임은 영웅·선생님 프레임(긍정적 프레임), 동격지도자 프레임(긍정적 프레임), 전략가 프레임(긍정적 프레임), 철부지·반항아 프레임(부정적 프레임), 독재자·구걸인 프레임(부정적 프레임) 등 다섯 가지였다. 이들 프레임명을 선정한 것은 본 연구자와 고참 언론인, 코더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 “작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프레임명은 기존에 학문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라 본 연구를 위해 처음으로 명명된 것이며, 이들 중 특정 프레임은 주로 미국 대통령(영웅·선생님 프레임) 또는 한국 대통령(철부지·반항아 프레임)에만 적용되는 한계성을 갖는다. 이들 프레임에 관한 정의는 <표 2>와 같으며, 프레임 정의에 관한 설명은 프레임 추출의 근거를 제시한다. 아울러 <표 2> 안에 있는 ( ) 안의 프레임은 문헌연구에서 언급된 2차 프레임(거대 프레임)을 의미한다. 다음 단계로 본 연구는 언론학을 전공하며 보도분석에 깊은 관심을 가진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코더로 선정했다. 코딩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에 대한 정의를 교육했고, 관련된 기사들을 예시하는 등 프레임 분석을 위한 교육을 두 차례 실시했다. 코더 교육후 코더 사이의 일치도(홀스티 신뢰도 계수)가 80% 전후에 도달한 뒤 본격적으로 코딩작업을 시작했다.<sup>1</sup> 코딩과정에서 한국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에 관련된 기사는 조선일보 272건, 뉴욕타임스 128건으로 파악됐고, 미국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에 관련된 기사는 조선일보



표 2.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명과 프레임 정의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명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의 정의
영웅·선생님 (긍정적)	대통령의 언행을 위대한 영웅처럼 묘사하거나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여러 내부적 문제(민주화 요구)에 대해 간여하며 가르치려는 모습을 묘사한 기사가 여기에 속한다. 재미교포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이승만의 방미, 한국인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아이젠하워, 존슨, 레이건 등의 방한 모습을 보도한 기사들은 그들을 '영웅'처럼 묘사했다. 한국전 후부터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방한하는 미국대통령들이 조선일보에 의해 주로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 '영웅'의 모습으로 묘사됐고, 가끔 그들은 한국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려는 모습으로도 묘사됐다. 반면 한국 대통령은 미국대통령에게 원가를 가르치거나 칭찬하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묘사된 적이 없다. '영웅·선생님'은 기사의 분위기가 상대국 대통령보다 우위에서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동격지도자 (긍정적)	한미 두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의 묘사에서 영웅·선생님 프레임처럼 위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외견상" 대등한(동격) 수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모습을 묘사한 기사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론적으로 한미 양국 대통령이 주권국가의 대표로서 평등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특별히 이 프레임을 설정했다. 기사의 분위기가 특정 대통령(특히 한국 대통령)을 평등한 입장에서 묘사한다는 것은 한미 정상간 이견이 존재함을 함의할 수 있다. 이 프레임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경제적 지원을 희구할 때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경제가 성장해 한미 정상이 '대등한(동격)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주장할 때나 상호 의견이 달라 갈등이 드러날 때 특히 많이 발견됐다.
전략가 (긍정적)	한미 양국 대통령이 북한, 동북아시아, 아시아 또는 세계 차원의 정치·경제에 관한 전략적인 논의를 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기사들이 여기에 분류됐다. 전략가 프레임은 코딩하는 동안 가장 많은 기사에서 추출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무대에서는 대통령들은 지역 또는 세계전략을 논의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가의 모습은 정치 지도자들이 언론을 통해 자신이 묘사되기를 원하는 개인적 이미지가기도 하다.
철부지·반항아 (부정적)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특정 사안이나 이슈에 있어 상대국 대통령의 입장에 반대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철부지의 모습을 그리는 기사를 가리킨다. 또한 상대국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거나 "비논리적으로" 상대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기사도 여기에 속한다. 조선일보의 노무현 묘사에서 특히 이 프레임이 많이 추출됐다. 이 프레임은 양국 대통령 사이의 엇박자를 묘사하며, 미국 대통령보다는 대체로 한국 대통령을 묘사하는데 주로 사용됐다. 이 프레임은 대체로 한미 관계가 순조롭지 않은 갈등상황에 있음을 함의한다.

1 코더 간 홀스티 신뢰도 계수는 조선일보에서 미국대통령 개인묘사프레임이 90%, 한국대통령 개인묘사프레임이 82%, 뉴욕타임스에서 미국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이 75%, 한국대통령 개인묘사프레임이 85%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일치도를 나타냈다.

독재자 · 구걸인 (부정적)	<p>정상회담 일정 전후에 인권억압 등의 보도를 통해 한국 대통령을 ‘독재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거나 원조를 얻으려는 모습을 전한 기사들이 여기에 속한다. 한미정상회담 보도에서 이런 기사는 매우 낮은 빈도로 발견됐으나 박정희 정권 후반, 전두환 정권 초반의 정상회담보도에서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수시로 게재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조선일보는 “억압된 언론 자유로 인해” 한국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을 독재자로 묘사할 수 없었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독재시절에는 언론자유가 없어서, 민주화시절엔 진보적 대통령을 비판하느라, 이런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았다. ‘구걸인’은 군사 · 경제 · 정치적 지원을 얻으려는 한국대통령의 모습을 주로 묘사한 기사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간혹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지원(한국군 이라크, 아프간 파견 등)을 얻으려 하는 모습을 보도한 기사도 이 범주로 분류됐다. 미국 신문이 한국(대통령)을 독재자로 묘사한 기사들은 다수 있었으나 한국 신문이 미국 대통령의 비민주성을 비판한 기사는 없었다.</p>
--------------------	--

\*참고: 위의 <표 2>에서는 기타를 생략했다. 또한 <표 2> 왼쪽의 ( )안의 프레임은 ‘계층적 프레임’의 관점에서 말하는 상위 프레임을 의미한다. 문헌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프레임에는 개별이슈 프레임과 거대 프레임이 계층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16건, 뉴욕타임스 130건으로 집계됐다. 코더들의 기사코딩에는 4개월이 걸렸다.

## 4. 연구결과

### 1) <연구결과1-1> 한국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 비교분석

#### (1) 조선일보의 한국대통령 개인묘사프레임

위에서 논의된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 분석의 방법론에 따라 조선일보에서 추출한 한국 대통령 묘사프레임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은 세로로 읽으면 한국 대통령의 개인별 묘사프레임의 구성을 나타내고,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을 프레임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개인묘사 프레임의 시대적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조선일보의 한국대통령 묘사 프레임을 개인별로 보면, 이승만 묘사프레임은 영웅 · 선생님(이승만을 국부로 묘사하면서 영웅으로 보

표 3. 조선일보의 한국대통령 묘사프레임(단위: 건)

대통령 개인프레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합계
영웅· 선생님	12 (41.4)	3 (5.2)	5 (13.5)	0 (0)	0 (0)	0 (0)	0 (0)	0 (0)	20 (7.4)
평등주의자	0 (0%)	4 (6.9)	17 (45.9)	30 (71.4)	13 (56.5)	12 (41.4)	15 (44.1)	8 (40.0)	99 (36.4)
전략가	14 (48.3)	47 (81.0)	14 (37.8)	8 (19.0)	9 (39.1)	13 (44.8)	7 (20.6)	12 (60.0)	124 (45.6)
철부지· 반항아	1 (3.4)	1 (1.7)	1 (2.7)	3 (7.1)	1 (4.3)	3 (10.3)	11 (32.4)	0 (0)	21 (7.7)
독재자· 구결인	2 (6.9)	3 (5.2)	0 (0)	1 (2.4)	0 (0)	1 (3.4)	1 (2.9)	0 (0)	8 (2.9)
합계	29 (100%)	58 (100%)	37 (100%)	42 (100%)	23 (100%)	29 (100%)	34 (100%)	20 (100%)	272 (100%)

\* 참고: 조선일보는 허정 국무총리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아 <표 3>에서 제외돼 있다.

도), 전략가 프레임(공산주의 격멸을 촉구하는 전략가)에 이어 독재자·구결인 프레임(미국에 군사적·경제적 원조 요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묘사에서는 전략가 프레임(북한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 전략을 제시 또는 촉구)이 압도적이며, 아울러 독재자·구결인 프레임도 나타났다. 전두환의 경우 영웅·선생님 프레임(그를 영웅처럼 묘사)이 다소 있으면서도 동격지도자 프레임(미국 대통령과 평등한 입장에 선 것처럼 보도)과 전략가 프레임(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공동전략 제시·논의)의 빈도로 많이 사용됐다.

노태우 묘사의 경우 영웅·선생님 프레임은 한 건도 사용되지 않았고, 그 대신 동격지도자 프레임과 전략가 프레임이 주로 사용됐다. 노태우부터 한국이 민주화 시대에 들어가자 조선일보는 노태우와 그 후임자들에게는 영웅·선생님 프레임을 한 건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어 김영삼 묘사에서도 동격지도자 프레임과 전략가 프레임이 높은 빈도로 사용됐다.

조선일보는 ‘진보적’ 정치인인 김대중에게는 동격지도자, 전략가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면서도 철부지·반항아 프레임을 눈에 띄게 많이 사용했다. 이어 노무현 묘사에서는 철부지·반항아 프레임의 사용빈도가 무려 30%를 상회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등장한 보수 정치인인 이명박 묘사에서는 부정적 묘사 프레임은 한 건도 사용하지 않은 채 우호적 보도인 전략가 프레임이나 동격주의자 프레임을 주로 사용했다.

다음으로 대통령 개인별 묘사프레임의 변화추세를 보면, 우선 영웅·선생님 프레임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에 대해서는 많이 또는 다소 사용됐으나, 노태우와 그 후임자에게는 이 프레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는 김대중·노무현에 대해 철부지·반항아 프레임은 전임자들에 비해 상당히 빈도 높게 사용했다. 전반적 추세를 보면, 이 신문은 한국 대통령에 대해 전략가 프레임을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45.6%)로 썼다.

## (2) 뉴욕타임스의 한국대통령 개인묘사프레임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뉴욕타임스의 한국대통령 묘사프레임을

표 4. 뉴욕타임스의 한국대통령 묘사프레임(단위: 건)

대통령 개인프레임	이승만	허정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합계
영웅· 선생님	2 (12.5)	0 (0)	3 (9.4)	0 (0)	7 (12.5)	0 (0)	0 (0)	0 (0)	0 (0)	7 (5.5)
평등주의자	0 (0)	0 (0)	7 (21.9)	4 (15.4)	1 (6.3)	0 (0)	5 (50.0)	1 (11.1)	0 (0)	18 (14.1)
전략가	7 (43.8)	1 (33.3)	11 (34.4)	9 (34.6)	12 (75.0)	8 (88.9)	5 (50.0)	4 (44.4)	6 (85.7)	63 (49.2)
철부지· 반항아	4 (25.0)	0 (0)	4 (12.5)	0 (0)	1 (6.3)	0 (0)	0 (0)	3 (33.3)	0 (0)	12 (9.4)
독재자· 구결인	3 (18.8)	2 (66.6)	7 (21.9)	13 (50.0)	0 (0)	1 (11.1)	0 (0)	1 (11.1)	1 (14.3)	28 (21.9)
합계	16 (100%)	3 (100%)	32 (100%)	26 (100%)	16 (100%)	9 (100%)	10 (100%)	9 (100%)	7 (100%)	128 (100%)

우선 개인별로 보면, 이승만에 대해서는 전략가 프레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어 철부지·반항아 프레임, 독재자·구결인 프레임과 영웅·선생님 프레임이 뒤따랐다. 이어 허정은 주로 ‘독재자·구결인’으로 묘사됐다. 박정희 묘사의 경우 전략가 프레임과 동격지도자 프레임에 이어 독재자·구결인 프레임과 철부지·반항아 프레임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 사용됐다. 전두환 묘사에서 이 신문은 독재자·구결인 프레임을 50%의 높은 빈도로 사용했고, 이것은 당시의 비민주적 상황을 드러냈다. 노태우 묘사에서 뉴욕타임스는 전략가 프레임(노태우는 탈냉전 시대를 맞아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 등 다양한 긴장완화 전략을 제시했음)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했고, 이어 영웅·선생님 프레임(노태우는 유엔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설을 했음)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했다. 김영삼의 묘사에서는 전략가 프레임이 압도적 빈도로 사용됐다. 김대중 묘사에서는 전략가 프레임과 동격지도자 프레임으로 주로 묘사됐다. 뉴욕타임스는 노무현의 묘사에서 눈에 띄게 철부지·반항아 프레임을 빈도 높게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스는 보수적 정치인인 이명박에 대해서는 빈도 높게 전략가 프레임을 사용했다.

이어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의 변화 추세를 보면, 뉴욕타임스는 이승만·(허정)·박정희·전두환까지를 빈도 높게 독재자·구결인 프레임으로 묘사했다. 노태우 묘사에서는 전략가 프레임이 빈도 높게 나타났다. 김영삼의 경우에도 전략가 프레임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뉴욕타임스에서도 전략가 프레임은 한국대통령 묘사에서 가장 빈도 높은 프레임이었다. 아울러 뉴욕타임스의 철부지·반항아 프레임 사용빈도는 노무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개인묘사 프레임은 영웅·선생님 프레임이 매우 낮은 빈도였으나 조선일보에서는 상당히 높은 빈도를 보여 ‘비대칭’을 드러냈다.

큰 흐름으로 보아, 뉴욕타임스의 한국대통령 묘사프레임에서는 뚜렷한 추세나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독재자·구결인 프레임이 후반에 와서 많이 줄어들었고, 철부지·반항아 프레임은 전반부(이승

만)에 다소 높게 나타났다가 낮아진 뒤 후반부(노무현)에 다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다른 개인묘사 프레임에서는 눈에 띄는 추세를 말하기는 어렵다.

## 2) <연구결과1-2> 한국대통령 개인묘사프레임 전체적 양상 비교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가 한미정상회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한국대통령 개인별로 사용한 묘사프레임을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위의 <표 3>과 <표 4>를 하나로 묶어서 만든 것이 <표 5>다. <표 5>를 보면 두 신문이 개별 한국대통령을 묘사하는 프레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표 5>를 놓고 두 신문의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승만 묘사에서 조선일보가 훨씬 높은 빈도로 영웅·선생님 프레임을 사용했고, 뉴욕타임스는 철부지·반항아 프레임과 독재자·구결인 프레임을 훨씬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 묘사 프

표 5.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한국대통령 개인묘사프레임 비교 (단위:%)

대통령 개인프레임	이승만	허정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합계
영웅· 선생님	41/12	/0	5/9	14/0	0/13	0/0	0/0	0/0	0/0	7/6
동경 지도자	0/0	/0	7/22	46/15	71/6	57/0	41/50	44/11	40/0	36/14
전략가	48/44	/33	81/34	38/35	19/75	39/89	45/50	21/44	60/86	46/49
철부지· 반항아	3/25	/0	2/13	3/0	7/6	4/0	10/0	32/33	0/0	8/9
독재자· 구결인	7/19	/67	5/22	0/50	2/0	0/11	3/0	3/11	0/14	3/22
합계	100/100	/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100/100

\*참고: 각 칸의 수치들 중 “/”의 앞부분은 조선일보의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 빈도, 뒷부분은 뉴욕타임스의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 빈도를 각각 나타낸다. 허정에 대한 조선일보의 개인묘사 프레임은 발견되지 않아 기입하지 않았다. 빈도의 %를 4사5입한 결과 그 합이 정확히 100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레이에서는 두 신문에 의해 동격 지도자 프레임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조선일보는 압도적인 빈도로 전략가 프레임을 사용했다. 또한 철부지·반항아 프레임과 독재자·구결인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사용됐다.

전두환의 묘사에서 조선일보는 영웅·선생님 프레임과 동격지도자 프레임을 빈도 높게 사용했다. 또한 독재자·구결인 프레임은 조선일보에서는 한 건도 사용되지 않았으나 뉴욕타임스에서는 압도적인 높은 빈도로 사용됐다. 노태우 묘사에서는 조선일보가 압도적인 높은 빈도로 동격지도자 프레임을 사용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압도적 빈도로 전략가 프레임을 사용했다. 이어 김영삼의 묘사에서 조선일보는 동격지도자 프레임을 높은 빈도로 사용했으나, 뉴욕타임스는 전략가 프레임을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사용했고 독재자·구결인 프레임을 다소 사용했다.

김대중 묘사에서는 조선일보가 철부지·반항아 프레임과 독재자·구결인 프레임을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사용했다. 노무현 묘사에서는 조선일보가 동격지도자 프레임을 다소 빈도 높게 사용했고 뉴욕타임스가 전략가 프레임을 다소 빈도 높게 사용했으나, 특별히 두 신문이 공통으로 철부지·반항아 프레임을 상당히 높은 빈도로 사용했다. 이명박 묘사에서는 조선일보가 동격지도자 프레임을 상대적으로 빈도 높게 사용했으며, 두 신문에서 전략가 프레임이 다른 대통령 묘사프레임에서보다 가장 빈도 높게 나타났고, 뉴욕타임스에서는 독재자·구결인 프레임이 다소 빈도 높게 사용됐다.

이상에서 논의된 한국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6>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6>은 개인묘사 프레임별 빈도를 신문별로 종합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프레임별 빈도를 보면, 전략가 프레임→동격지도자 프레임→철부지·반항아 프레임→영웅·선생님 프레임→독재자·구결인 프레임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뉴욕타임스에서는 전략가 프레임→독재자·구결인 프레임→동격지도자 프레임→철부지·반항아 프레임→영웅·선생님 프레임의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표 6. 한국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 종합적 비교

개인프레임 신문명	영웅· 선생님	동격지도자	전략가	철부지· 반항아	독재자· 구결인	합계
조선일보	20 (7.4)	99 (36.4)	124 (45.6)	21 (7.7)	8 (2.9)	272 (100%)
뉴욕타임스	7 (5.5)	18 (14.1)	63 (49.2)	12 (9.4)	28 (21.9)	128 (100%)
합계	27 (6.8%)	117 (29.2%)	187 (46.8%)	33 (8.2%)	36 (9.0%)	400 (100%)

\*통계량:  $\chi^2=50.51$ , d.f.=4, p=0.000

\*참고1: 카이스퀘어(X2) = 50.506, df=4, p<.05

\*참고2: 매체별로 한국 대통령 프레임에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3: 위의 <표 6>에서 한국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 기사의 수는 조선일보가 272건, 뉴욕타임스가 128건으로 집계돼 있다. 이 분석의 대상기사는 '재조정된 기사'인 조선일보 526건, 뉴욕타임스 161건을 모수로 하고 있으나, 이들 중 조선일보 기사 272건, 뉴욕타임스 128건만이 한국대통령 묘사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두 신문의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별 빈도수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전략가 프레임의 빈도가 유사한데 비해 독재자·구결인 프레임의 빈도가 큰 차이를 드러냈고, 이것은 결국 양국의 정치상황, 양국관계 등이 대통령묘사 프레임에 반영됐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을 긍정적 프레임 및 부정적 프레임이라는 계층적 프레임의 관점에서 재분류해 보면 <표 7>과 같이 나타난다. 조선일보에서 한국 대통령들이 긍정적 묘사인 영웅·동격지도자·

표 7. 한국대통령 묘사프레임(긍정묘사프레임 대 부정묘사프레임)

신문명	긍정·부정 묘사프레임	긍정적 묘사 프레임(%) (영웅·선생님, 동격주의자, 전략가)	부정적 묘사 프레임(%) (철부지·반항아, 독재자·구결인)
조선일보		89.4	10.6
뉴욕타임스		68.8	31.1

\*통계량:  $\chi^2=25.85$ , d.f.=1, p=0.000



전략가 프레임으로 묘사됐던 빈도는 89.4%였으나, 부정적 프레임인 철부지·반항아 프레임과 독재자·구결인 프레임으로 나타났던 빈도는 10.6%에 달했다. 이에 비해 뉴욕타임스에서는 한국대통령들이 긍정적 프레임으로 묘사됐던 빈도는 이보다는 낮은 68.8%였고, 부정적 프레임으로 묘사됐던 빈도는 무려 31.3%에 달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조선일보에서는 한국 대통령들에 대한 긍정적 프레임의 비율이 높았고 부정적 묘사 프레임의 비율이 낮았으나, 뉴욕타임스에서는 한국대통령들에 대한 긍정적 묘사 프레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부정적 묘사프레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환언하면, 조선일보는 자국의 대통령들에 대해 ‘국익적 관점에서’ 또는 ‘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높은 빈도로 우호적 묘사(긍정적 묘사)를 했으나, 뉴욕타임스는 ‘편집방침에 따라’ 또는 ‘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국대통령들에 대해 낮은 빈도로 우호적 묘사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연구결과 2-1〉 미국대통령 묘사프레임 비교분석

#### (1) 조선일보의 미국대통령 개인묘사프레임

앞에서 논의된 대통령 개인묘사프레임 분석 방법론에 따라 추출한 미국 대통령 묘사프레임은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표 8〉은 세로로 읽으면 미국 대통령의 개인별 묘사프레임의 구성을 나타내며, 프레임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개인묘사 프레임의 추이를 나타낸다.

우선 미국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을 대통령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아이젠하워의 경우 압도적으로 영웅·선생님 프레임으로 묘사했다. 또한 박정희의 방미로 이뤄진 한 차례의 박·케네디 회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케네디를 영웅·선생님, 동격주의자, 전략가의 프레임으로 묘사했다. 이어 박정희의 두 차례 방미와 존슨의 한 차례 방한으로 이뤄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존슨을 영웅·선생님 프레임과 전략가 프레임으로 주로 묘사했다. 이에

표 8. 조선일보의 미국대통령 개인묘사프레임(단위: 건)

대통령 프레임	아이젠 하위	케네디	존슨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Sr	클린턴	부시 Jr	오바마	합계
영웅· 선생님	22 (78.6)	4 (36.4)	14 (51.9)	0 (0)	3 (100)	1 (50.0)	2 (6.9)	3 (11.5)	3 (8.3)	7 (17.9)	0 (0)	59 (27.3)
동격 지도자	2 (7.1)	3 (27.3)	1 (3.7)	1 (33.3)	0 (0)	0 (0)	16 (55.2)	16 (61.5)	25 (69.4)	25 (64.1)	6 (50.0)	95 (44.0)
전략가	3 (10.7)	4 (36.4)	11 (40.7)	2 (66.7)	0 (0)	1 (50.0)	11 (37.9)	6 (23.1)	8 (22.2)	5 (12.8)	6 (50.0)	57 (26.4)
철부지 반항아	1 (3.6)	0 (0)	0 (0)	0 (0)	0 (0)	0 (0)	0 (0)	1 (3.8)	0 (0)	2 (5.1)	0 (0)	4 (1.8)
독재자 구걸인	0 (0)	0 (0)	1 (3.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5)
합계	28 (100%)	11 (100%)	27 (100%)	3 (100%)	3 (100%)	2 (100%)	29 (100%)	26 (100%)	36 (100%)	39 (100%)	12 (100%)	216 (100%)

비해 박정희의 한 차례 방미로 이뤄진 박·닉슨 회담 보도에서 조선일보의 닉슨에 대해 전략가 프레임으로 주로 묘사했다. 또한 포드의 한 차례 방한으로 성사된 박·포드 회담 보도에서 조선일보는 압도적 빈도로 영웅·선생님 프레임을 사용했다.

조선일보는 카터 대통령 묘사에서 영웅·선생님 프레임은 다소 적게 사용했고, 전략가 프레임을 다소 많이 사용했다. 레이건 묘사에서 영웅·선생님 프레임이 급격히 줄었고, 그 대신 동격지도자 프레임, 전략가 프레임이 크게 늘었다. 이어 아버지 부시 대통령 묘사에서는 동격지도자 프레임과 전략가 프레임이 많이 사용됐다. 이어 클린턴 묘사에서도 동격지도자 프레임과 전략가 프레임이 빈번히 사용됐다. 아들 부시 대통령도 주로 동격지도자 프레임으로 묘사됐으며, 오바마의 경우 동격주의자 프레임과 전략가 프레임으로 묘사됐다.

다음으로 미국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영웅·선생님 프레임의 변화가 눈에 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해 영웅·선생님 프레임이 사용됐던 것은 주로 전반부인 아이젠하워·케네디·존

슨·포드·카터 등에 해당됐다. 이것은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 동안 조선일보가 한국의 대통령을 영웅·선생님의 프레임으로 묘사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 대통령 묘사에도 거의 동일한 프레임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런 면에서 레이건과 그 후임자들에게는 영웅·선생님 프레임의 사용빈도가 높지 않았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 동격주의자 프레임의 빈도가 레이건부터 그 후임자들에게 이르러 상당히 높아졌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이들 대통령을 묘사할 때 한미 정상회담 초기의 미국대통령들처럼 ‘한국의 구원자’ 또는 ‘한국에 대한 시혜자’라는 관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략가 프레임에서는 뚜렷한 변화의 특징을 잡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전략가 프레임은 꾸준히 높은 빈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대통령들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한국 대통령과 전략을 숙의하는 모습이 반영됐다고 해석된다.

## (2) 뉴욕타임스의 미국대통령 개인묘사프레임

뉴욕타임스의 미국대통령 개인별 묘사프레임을 정리하면 <표 9>와 같

표 9. 뉴욕타임스의 미국대통령 개인묘사프레임(단위: 건)

대통령 프레임	아이젠 하워	케네디	존슨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Sr	클린턴	부시 Jr	오바마	합계
영웅· 선생님	15 (65.2)	0 (0)	1 (9.0)	0 (0)	2 (66.7)	3 (30.0)	8 (38.1)	1 (9.1)	3 (15.8)	0 (0)	2 (50.0)	35 (26.9)
평등 주의자	1 (4.3)	5 (100)	9 (75.0)	2 (66.7)	1 (33.3)	5 (50.0)	3 (14.3)	0 (0)	2 (10.5)	0 (0)	0 (0)	28 (21.5)
전략가	7 (30.4)	0 (0)	2 (16.7)	1 (33.3)	0 (0)	2 (20.0)	6 (38.1)	9 (81.8)	14 (73.7)	19 (100)	2 (50.0)	64 (49.2)
철부지· 반항아	0 (0)	0 (0)	0 (0)	0 (0)	0 (0)	0 (0)	1 (4.8)	1 (9.1)	0 (0)	0 (0)	0 (0)	2 (1.5)
독재자· 구결인	0 (0)	0 (0)	1 (3.7)	0 (0)	0 (0)	0 (0)	1 (4.8)	0 (0)	0 (0)	0 (0)	0 (0)	1 (0.8)
합계	23 (100%)	3 (100%)	12 (100%)	3 (100%)	3 (100%)	10 (100%)	21 (100%)	11 (100%)	19 (100%)	19 (100%)	4 (100%)	130 (100%)

이 나타났다.

〈표 9〉에 근거해 뉴욕타임스의 미국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을 살펴보면, 아이젠하워의 경우 조선일보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웅·선생님 프레임의 빈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어 케네디는 3건의 기사에서 동격지도자 프레임으로 묘사됐고, 존슨은 동격지도자 프레임, 전략가 프레임, 영웅·선생님 프레임으로 묘사됐다. 이어 닉슨과 포드에게는 영웅·선생님 프레임, 전략가 프레임이 사용됐고, 카터에 대해서는 동격지도자 프레임과 영웅·선생님 프레임이 사용됐다. 레이건에 대해서는 영웅·선생님 프레임, 전략가 프레임이 함께 빈번히 사용됐고, 철부지·반항아 프레임과 독재자·구결인 프레임도 사용됐다. 아버지 부시와 클린턴의 경우 전략가 프레임의 빈도가 높았다. 이런 흐름은 아들 부시에게도 이어져, 아들 부시의 묘사에서 전략가 프레임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런 전략가 프레임은 오바마에게도 사용됐다.

미국대통령의 개인묘사 프레임의 개별적 프레임의 추이를 보면, 영웅·선생님 프레임이 정상회담 초반부에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낮아졌다. 동격주의자 프레임은 특정한 추세를 찾기 어려웠고, 전략가 프레임도 일정 정도 이상의 빈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어떤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영웅·선생님 프레임만 일정한 추세를 보였다고 평가된다.

#### 4) 〈연구결과 2-2〉 미국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의 종합적 비교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가 한미정상회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미국대통령에 대해 개인별로 사용한 묘사프레임을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위의 〈표 8〉과 〈표 9〉를 하나로 묶어서 만든 것이 〈표 10〉이다. 〈표 10〉을 보면 두 신문이 개별 한국대통령을 묘사하는 프레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표 10〉을 놓고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개인묘사 프레임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두 신문은 아이젠하워 묘사에서 압도적인 높은

표 10.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미국대통령 개인묘사프레임 비교(단위:%)

대통령 프레임	아이젠 하워	케네디	존슨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Sr	클린턴	부시 Jr	오바마	합계
영웅· 선생님	79/65	36/0	52/9	0/0	100/67	50/30	7/38	12/9	8/16	18/0	0/50	27/27
동격 지도자	7/4	27/100	4/75	33/67	0/33	0/50	55/14	62/0	69/11	64/0	50/0	44/22
전략가	11/30	36/0	41/17	67/33	0/0	50/20	38/38	23/82	22/74	13/100	50/50	26/49
철부지· 반항아	4/0	0/0	0/0	0/0	0/0	0/0	0/5	4/9	0/0	5/0	0/0	2/2
독재자· 구결인	0/0	0/0	4/4	0/0	0/0	0/0	0/5	0/0	0/0	0/0	0/0	1/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참고: 각 칸의 수치들 중 “/”의 앞부분은 조선일보의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 빈도, 뒷부분은 뉴욕타임스의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 빈도를 각각 나타낸다. 빈도의 %를 반올림한 결과 그 합이 정확히 100%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빈도로 영웅·선생님 프레임을 사용했고 조선일보의 빈도가 조금 높았다. 케네디 묘사에서 조선일보가 영웅·선생님 프레임을 다소 높게 사용했고, 뉴욕타임스는 동격지도자 프레임만을 사용했다. 존슨 묘사에서 조선일보는 압도적인 높은 빈도로 영웅·선생님 프레임을 사용했으나, 뉴욕타임스는 동격지도자 프레임을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해 좋은 대조를 보였다. 닉슨 묘사에서는 두 신문이 동격지도자 프레임과 전략가 프레임만을 사용했다. 포드 묘사에서는 조선일보는 영웅·선생님 프레임만을 사용했고, 뉴욕타임스는 영웅·선생님 프레임과 동격지도자 프레임을 함께 사용했다.

또한 카터 묘사에서 조선일보는 영웅·선생님 프레임과 전략가 프레임을 절반씩 사용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영웅·선생님 프레임, 동격지도자 프레임, 전략가 프레임을 사용했다. 레이건 묘사에서는 뉴욕타임스가 조선일보보다 더 높은 빈도로 영웅·선생님 프레임을 사용했으며, 조선일보는 동격지도자 프레임을 더 빈도 높게 사용했다. 특히 레이건

묘사에서는 뉴욕타임스가 이례적으로 철부지·반항아 프레임과 독재자·구결인 프레임을 다소 사용했다.

아버지 부시 묘사에서 조선일보는 동격지도자 프레임을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전략가 프레임만을 사용했다. 클린턴 묘사에서 조선일보는 동격지도자 프레임을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사용했으나, 뉴욕타임스는 전략가 프레임을 압도적인 높은 빈도로 사용했다. 아들 부시 묘사에서는 조선일보가 동격지도자 프레임을 압도적 빈도로 사용했으나, 뉴욕타임스는 전략가 프레임만을 사용했다. 오바마 묘사에서는 조선일보가 동격지도자 프레임과 전략가 프레임을 절반씩 사용했고, 뉴욕타임스가 영웅·선생님 프레임과 전략가 프레임을 절반씩 사용했다.

이상에서 논의된 미국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11>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1>은 개인묘사 프레임별 빈도를 모두 신문별로 종합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프레임별 빈도를 보면, 동격지도자 프레임→영웅·선생님 프레임→전략가 프레임→철부지·반항아 프레임→독재자·구결인 프레임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뉴욕

표 11. 미국대통령 묘사프레임 종합적 비교

신문명 \ 개인프레임	영웅· 선생님	동격주의자	전략가	철부지· 반항아	독재자· 구결인	합계
조선일보	59 (27.3)	95 (44.0)	57 (26.4)	4 (1.8)	1 (0.5)	216 (100%)
뉴욕타임스	35 (26.9)	28 (21.5)	64 (49.2)	2 (1.5)	1 (0.8)	130 (100%)
합계	94 (27.2%)	123 (35.5%)	121 (34.9%)	6 (1.8%)	2 (0.6%)	346 (100%)

\*통계량:  $\chi^2=23.79$ , d.f.=4, p=0.000

\*참고1: 매체별로 미국대통령 묘사프레임에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신뢰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2: 분석 대상 전체 기사(조선일보 526건, 뉴욕타임스 161건) 중 미국 대통령 묘사프레임이 발견된 기사건수는 조선일보 216건, 뉴욕타임스 130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미국 대통령 묘사프레임을 말하기 어려운 기사들이었다.

표 12. 미국대통령 묘사프레임 (긍정묘사프레임 대 부정묘사프레임)

신문명 \ 긍정·부정 묘사프레임	긍정적 묘사 프레임 (%) (영웅·선생님, 동격지도자, 전략가)	부정적 묘사 프레임 (%) (철부지·반항아, 독재자·구결인)
조선일보	97.7	2.3
뉴욕타임스	97.6	2.4

\*통계량:  $\chi^2=0.00$ , d.f.=1, p=0.997

타임스에서는 전략가 프레임→영웅·선생님 프레임→동격주의자 프레임→철부지·반항아 프레임→독재자·구결인 프레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신문이 사용한 프레임별 빈도순에서 상당한 차이(비대칭)가 드러났다.

이어 미국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을 긍정적 프레임 및 부정적 프레임으로 재분류해보면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조선일보에서 미국 대통령들이 긍정적 묘사인 영웅·동격주의자·전략가 프레임으로 묘사됐던 빈도는 97.7%였으나 부정적 프레임인 철부지·반항아 프레임과 독재자·구결인 프레임의 빈도는 불과 2.3%였다. 이에 비해 뉴욕타임스에서는 미국대통령들이 긍정적 프레임으로 묘사됐던 빈도는 97.6%였고, 부정적 프레임으로 묘사됐던 빈도는 2.4%에 불과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한국대통령들은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 두 신문에서 부정적 프레임으로 묘사된 빈도는 각각 10.6%, 31.1%로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던 데 비해 미국 대통령들은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두 신문에 의한 부정적 묘사는 거의 무시할 수준으로 낮은 빈도인 2.3%와 2.4%로 각각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대통령들은 한국 신문인 조선일보에 의해서도, 미국신문인 뉴욕타임스에 의해서도 우호적 묘사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으나 미국 대통령은 두 신문에 의해 우호적 묘사의 혜택을 누렸다고 평가된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 조선일보는 한국의 권위주의 시기나 민주화 시

기에 공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일이 빈번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보도행태는 미국대통령의 무결점성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조선일보의 미국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인 존중심에 기인하는지 추정하기 어렵다. 조선일보의 미국대통령 비판보도는 조지 HW 부시의 한국시장 개방 압력을 계기로 단지 몇 건의 기사가 있었다. 어쨌든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한국 대통령 및 미국대통령 묘사프레임은 이들 신문이 근거한 자국의 정치·경제적 여건, 신문사의 편집방침, 양국관계 등 현실적 상황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미 양국의 대표적 신문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가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한국정부 이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미정상회담을 보도한 기사에서 어떠한 대통령의 모습이 대통령 개인 묘사 프레임으로 나타났는지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한미 양국에서 대통령이란 자국을 상징하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신문에서 드러난 양국 대통령의 개인묘사 프레임은 결국 두 신문에 비쳐진 한미 양국의 이미지와 관련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수행한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의 비교분석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개인묘사 프레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던 한국 대통령들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김대중·노무현으로 대별할 수 있다. 앞의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은 조선일보에서는 긍정적 묘사 프레임의 빈도가 높았으나 뉴욕타임스에서는 부정적 묘사 프레임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들의 집권기에 한국의 언론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으나 뉴욕타임스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비민주성을 수시로 보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 노태우·김영삼 정권기는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에서 대통



령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상당히 줄어든 시기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것은 6·29 선언 후 집권한 노태우 이래 김영삼 정권이 민주화의 길을 걸었고, 조선일보가 이들 두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정권기는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가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해 부정적 묘사 프레임을 많이 사용했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북한정책을 놓고 김대중을 부정적으로 보도했고, 조선일보 및 뉴욕타임스가 역시 북한정책을 놓고 노무현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무현 묘사에서 두 신문이 모두 부정적 묘사 프레임인 철부지·반항아 프레임을 30% 이상 사용했다(조선일보, 32.4%; 뉴욕타임스, 33.3%)는 사실은 노무현이 이들 두 신문에 의해 심한 비판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두 신문이 긍정적 묘사 프레임을 빈도 높게 사용했으나, 이명박이 북한문제를 놓고 미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 뉴욕타임스에 의해 상대적으로 높은 독재자·구결인 프레임의 사용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두 신문의 한국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은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1년간의 큰 흐름에서는 한미관계의 현실을 상당한 정도로 반영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 두 신문의 보도는 각각 양국의 정치적 환경이나 신문의 편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미국대통령에 대한 개인묘사 프레임의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두 신문에 의한 부정적 묘사 프레임의 빈도가 눈에 띄게 낮은 가운데 긍정적 묘사 프레임에서만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경우 두 신문에 의해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영웅·선생님 프레임이 사용됐고, 이 영웅·선생님 프레임은 포드·카터·레이건에 이르기까지 높은 빈도로 계속 나타났다. 미국 대통령에 대해 영웅·선생님 프레임을 상대적으로 빈도 높게 사용한 것은 조선일보였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그 만큼 정상회담 전반부만 해도 이들 미국

대통령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보도를 했음을 의미한다. 동격지도자 프레임은 조선일보에서 정상회담 개최시기가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빈도 높게 사용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한미정상회담 개최시기가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한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미국대통령을 보는 시각을 반영했다고 분석된다. 더 이상 미국 대통령이 “영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할수록, 그리고 한국의 정치상황이 민주화될수록 미국대통령을 묘사하는 조선일보의 프레임이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음을 드러낸다. 전략가 프레임의 경우 두 신문에서 대체로 빈도 높게 사용됐으나 일정한 추세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한미 두 신문의 미국대통령 묘사프레임이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에서 보면 양국 신문의 미국 대통령 묘사프레임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결국 자국의 정치·경제적 요소들이 양국 신문의 한미 대통령 묘사프레임에도 반영됐음을 함의한다.

또한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신문의 묘사프레임을 종합해 본 결과 한국 대통령들은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에 의해 더 빈번하게 부정적 보도(조선일보 부정적 보도 10.6%; 뉴욕타임스 부정적 보도 31.1%)를 받았으나, 미국 대통령들은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에서 공통적으로 비판적 보도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조선일보 부정적 보도 2.3%; 뉴욕타임스 부정적 보도 2.4%). 한국대통령들은 조선일보에서도 뉴욕타임스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부정적 보도를 당하는 ‘비대칭’이 드러났다. 이것을 보면, 조선일보는 북한정책에 관한 한 김대중과 노무현을 부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이들 정부가 생각하는 ‘국익’과는 다른 방향의 입장(신문사의 보수적 편집방향)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한미정상회담 보도기사를 놓고 프레임 이론을 원용해 양국 대통령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개인묘사 프레임을 추출해 비교한 것이다. 당초 본 연구는 초창기 정상회담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열광적인 환영”, “연도에 수십만 명이 도열해 방한하는 미국대통령을 환영” 등과 같은 감

성적 기사들을 보면서 ‘영웅 프레임’을 생각해 냈다. 초창기 이 같은 한미정상회담 보도의 분위기는 1989년 민주화 이래 간헐적으로 터져 나온 반미시위와 미국대통령의 방한반대 시위를 보도한 최근 20여 년간의 한미정상회담 보도와는 분위기가 달랐고 대통령 묘사도 달라졌다.

본 연구에서 한미 양국신문이 동일한 자국 및 미국 대통령을 보도 하는데 서로 다른 묘사프레임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양국 신문의 양국대통령 묘사프레임은 결국 이들 신문이 소속된 국가의 정치적 환경(독재 또는 민주, 다시 말해 대통령 보도에 있어서 언론자유가 없는 상태나 언론자유가 있는 상태)을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대통령묘사 프레임의 차이는 양국의 역학 관계를 나타낸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보도프레임은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언론학의 이론이 대통령묘사프레임에 반영되고 있음을 잘 말해 준다. 이것은 또한 양국언론이 대통령보도에서 드러낸 보도관행이나 보도문화의 차이를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언론학 분야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가운데 정치학쪽의 선행연구를 부분적으로 참고하면서 한미정상회담 보도기사에서 한미 양국 대통령 묘사프레임을 귀납적으로 추출해 냈던 만큼 프레임 추출 및 작명의 기술상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가 시도한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 분석은 두 신문의 한미정상회담 보도를 놓고 대통령 개인별 묘사 프레임의 신문 간 비교를 했고, 나아가 이들 개인묘사 프레임의 시대적 변화를 파악했던 만큼 상당한 정도의 연구 성과를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특히 대통령의 개인별 묘사프레임을 상호 비교한 것과 특정 묘사프레임의 시대적 변화를 동시에 파악해 비교함으로써 이를 통해 한미관계 변화사의 일단을 확인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추가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대통령에 관한 기사를 놓고 100% 정밀한 과학적 방법으로 개인묘사 프레임으로 분류해 프레임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것이 본 연구의 부분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런 정도라도 대통령 개인묘사 프레임을 비교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내원 (2001). 지역사회논쟁, 집단프레임, 그리고 뉴스매체. 『한국언론학보』, 45권 5호, 190~240.
- 강정구 (2005).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서울: 한울출판사.
- 김석용 (2005).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역대 정권의 외교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선남 (2002). 매매춘 관련 TV뉴스의 보도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6권 2호, 41~76쪽.
- 김성해·강국진 (2010). 『국가의 품격과 저널리즘 외교』.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성해·김경모 (2008). 동아시아 공동체와 언론: 동아시아 지역의 역대 금융협력에 대한 한·중·일 언론의 보도비교. 『언론과학연구』, 10권 1호, 77~123.
- 김원용·이동훈 (2005).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국내 원자력 관련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66~197.
- 김학순 (1999). 『뉴욕타임스의 한반도 관련보도 성향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현 (2004). 선거후보자의 이미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4호, 175~197쪽.
- 설원태 (2011). 『한미정상회담보도 비교연구: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비대칭 보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 설진아·김활빈 (2008). 대중매체의 후보이미지 형성 및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328~352.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7권 2호, 284~315.
- 이승철 (2011). 『한국외교 24시: YS에서 MB까지 외교현장 리포트』. 서울: 부키.
- 이우승 (2000). 정상회담에 나타난 북한과 김정일 이미지 분석. 『저널리즘비평』, 31권, 26~34.
- 차상철 (2004). 『한미동맹 50년』. 서울: 생각의 나무.

- 최창섭 (1992). 리더십 이미지 형성과 언론. 한국언론학회 주최 제6차 <쟁점과 토론> 포럼 발표집, 5~17.
- 탁진영 (2006). 텔레비전 정치광고가 후보자 이미지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0권 5호, 328~353.
- Balutis, A. P. (1976). Congress, the president, and the press. *Journalism Quarterly*, 53(3), 509~515.
- Barber, J D. (1992). *The presidential character: Predicting performance in the White House. (4th E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Cook, T. E., & Ragsdale, L. (1995). The president and the press: negotiating newsworthiness at the White House. In M. Nelson (Ed.)(1995), *The presidency and the political system (4th Ed.)* (pp. 297~330). Washington D.C.: CQ Press.
- Cornwell Jr., E. E. (1959). Presidential news: the expanding public image. *Journalism Quarterly*, 36(6), 275~283.
- Dimitrova, D., & Stromback, J. (2005). Mission accomplished? Framing of the Iraq War in the elite newspapers in Sweden and the U.S. *Gazette*, 67(5), 399~417.
- Entman, R. M. (1990). The imperial media. In R. E. DiClerico (Ed.), *Analyzing the presidency* (pp. 154~167). Guilford: The Dushkin Publishing Group, Inc.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27.
- Gamson, W. A. (1992). *Talking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tlin, T. (1980). *Th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the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rossman, M. B., & Kumar, M. J. (1981). *Portraying the President: The White House and the news media*.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astedt, G. P. (2003). *American foreign policy: Past, present, future*. New Jersey: Prentice Hall.
- Kim, S. T. (2004). Mapping an economic globalization news paradigm: A multi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Quarterly*, 81(3), 601 ~621.

Kitzinger, J.(2007). Frame and frame analysis. In E. Devreux (Ed.) (2007), *Media studies: Key issues & debates* (pp. 134 ~161). Thousand Oaks, CA: Sage.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 ~109.

Tuchman, G. (1995).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Van Gorp, B. (2007). The constructivist approach to framing bringing culture back in. *Journal of Communication*, 57, 60 ~78.

최초 투고일 • 2011.12.09

논문 수정일 • 2012.02.01

게재 확정일 • 2012.02.02